

# ‘슈퍼 화요일’ 트럼프, 탈세·KKK 지지 논란

〈백인 우월주의단체〉

## 공화당 크루즈·루비오 협공

### 트럼프 “KKK·듀크 모른다”

미국 대선 경선판의 승부를 좌우할 첫 분수령인 1일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 의혹과 백인 우월주의단체 쿠클럭스클랜(KKK)의 트럼프 지지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테드 크루즈(텍사스)·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이 두 가지 사안을 고리로 트럼프를 협공하면서 판세 흔들기에 나서고, CNN 방송 등 언론이 이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슈퍼 화요일의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먼저 세금 의혹과 관련해 크루즈 의원은 28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의 한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그동안 트럼프가 캠페인이나 마피아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다”면서 “트럼프의 납세신고서에는 아마도 보도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거래 내역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를 지낸 린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최근 “트

럼프의 세금에 폭탄이 있을 거라고 믿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의 재산이 자신이 말한 것에 한참 못 미치거나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일 수 있다”며 트럼프의 납세 의혹을 공개 제기해 왔다.

크루즈 의원은 전날 자신의 2011~2014년 납세실적 요약본도 공개했다. 루비오 의원 역시 같은 날 최근 5년간 납세 실적을 공개하며 트럼프를 압박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납세 내역을 공개하고 싶지만 국세청의 정기 감사가 진행 중이라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KKK 전 지도자 데이비드 듀크가 최근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것과 관련해선 당사자인 트럼프가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는 “듀크의 지지를 거부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거리를 둘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는 데이비드 듀크를 모른다. 그가 나를 지지했느냐, 백인우월주의자들에게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도대체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면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는 단체의 지지는 거부하겠다. 당신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비난하길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탈세 의혹과 KKK 지지 논란에 휩싸였다.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루비오 의원은 버지니아 유세 도중 “트럼프가 듀크와 KKK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것이다. 2000년 연젠가 본인의 입으로 듀크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2000년 2월 개혁당 대선 후보 출마 포기 당시 성명에서 개혁당에 포함된 듀크 등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런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루비오 의원은 “트럼프가 CNN 인터뷰에서 KKK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어떻게 KKK 비판을 거부하는 사람을 우리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트럼프는 트위터에 듀크의 지지를 거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 중 접경지 북한 식당 한국인 발길 뜰

### 정부 이용 자제 권고

### 손님 30~40% 줄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권고한 이후 중국 내 북한 접경지역의 북한 음식점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

북중접경의 한 소식통은 29일 “최근 한국 정부가 교민 등을 대상으로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재외공관을 통해 당부한 이래 중국 라오닝성 단둥과 선양 등 접경에 위치한 북한 식당을 찾는 손님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주말 단둥의 북한 음식점을 이용했을 때 평소 저녁식사 시간이면 단체 관광객들로 빈 자리를 찾지 힘들던 것과 대조적으로 30~40% 정도 손님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용객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이용 자제 권고에 따라 최근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발길을 돌린 탓이다.

이런 시정은 중국 동북지방 최대 코리아 타운이라 일컫는 선양 시타(西塔) 일대의 북한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선양의 한 교민은 “요즘 시타 부근 북한

식당을 찾는 한국 사람이 크게 줄고 이들이 부근의 일반 한국 식당이나 한식뷔페 등으로 유입됐다”며 그간 북한 식당을 찾는 단체 관광객 등이 많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재 북·중 접경에서 운영 중인 북한 식당은 단둥·선양·연변조선족자치주 등 40~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접촉신고 대상에 해당하진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경제 국면에서 이탈 중순 정부는 북한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내 북한 식당은 북한 측이 관리·요리사·종업원 등 인력과 음식재료를 공급하고, 중국인이 운영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북한전통요리를 맛볼 수 있고 여종업원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호기심을 끌지만 음식값이 비싸고 서비스도 불친절해 민원을 날기도 했다.

또다른 교민은 “북한 식당에서 식사하려면 4명이 최소 2000 위안(약 38만원)을 써야 한다”면서 “이단 핵실험 등으로 중국 투자자의 대북투자가 상당 부분 중단됐기 때문에 북한이 해외 식당을 통한 외화벌이에 힘쓰고 있지만 마저 타격이 있을 조짐”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라크 자살 폭탄테러...최소 87명 사망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28일(현지시간)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연쇄 자살 폭탄 공격이 일어나 최소 87명이 사망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한 소년이 오��바이 자폭 테러로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드르시타 지역의 한 시장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광무제 유수

광무제 유수(劉秀 BC 6-AD 57)는 왕망의 신 왕조를 멸하고 한 왕조를 부활시킨 후한의 초대 황제다.

왕망은 시대착오적인 복고주의 정책을 펴으로써 왕조를 나락으로 내몰았다. 특히 토지와 노예 매매 금지는 한 왕조를 지탱해준 지방호족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했다. 잦은 기근으로 기아에 빠진 농민들의 반란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유수의 집안도 천하의 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왕망세력 중 녹미군과 적미군의 세력이 비교적 강했다. 전염병이 창궐해 세력이 약화된 녹미군이 남양지방의 지배 호족 산하로 들어갔다. 남양 유씨 일족인 유현을 지도자로 옹립하니 경시제다. 경시제 휘하로 일족인 유연과 그의 동생 유수가 들어갔다.

“사관을 하려면 음력화라”는 말은 트위터에 듀크의 지지를 거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거리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보내 “큰일을 할 사람은 작은 원한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투항을 권유했다. 주유가 항복하자 친히 결박을 풀어주고 예의를 갖추어 후대했다.

그는 조정력이 탁월해 장군들 사이의 갈등을 잘 무마하였다고 한다. 장군 가복과 구순은 불구대천의 원수사이었지만 둘을 불러 화해케 만들었다. 죽을 때 까지 둘을 공신으로 잘 대접했음은 물론이다.

신 왕조의 난정오도탄에 빠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관리를 줄이는 등 행정간소화에 노력했고 전쟁이나 토목사업 등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그의 유허정치과 민생 중심의 정책 덕분에 천하는 빠르게 안정되어갔다. 흉노가 남북세력으로 내부 분열된 것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국경의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내정에 올인할 수 있었다. 제위 후반에는 철저히 휴식으로 일관했다.

## 후한 초대 황제...민생 정치로 ‘태평성대’

일원인 유수가 졸지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경시제의 군대와 왕망의 진압군은 AD 23년 하북성 곤양성의 전투에서 격퇴됐다. 왕망군은 제대로 된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해 참패했다. 왕망은 두오군에게 피살되고 신 왕조는 멸망했다.

경시군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 경시제는 명망이 높은 유연을 시기에 살해했다. 유수는 정면 대결을 피해 하북성을 근거지로 중앙 정권과 거리를 두고 독자 세력을 키워나갔다.

왕망을 몰아내고 장안을 점령한 경시제는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트렸다. 산둥지방의 적미군이 장안을 공격해 경시제를 몰아냈지만 식량 부족으로 수많은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아비규환의 연속이었다. 유수는 적미군을 토벌하고 수도를 낙양으로 천도하여 36년 후한 왕조를 건국했다.

그는 “민심을 얻은 자, 천하를 얻는다”는 말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황제가 되었다. 천하의 요새인 낙양을 차지한 것은 그가 추구한 유허정치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 할 것이다. 당시 낙양성은 30만명이 지키고 있었다. 성을 지키고 있던 주제에게 투항을 권했지만 유수의 형 유연을 살해하는데 참여한 전역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머뭇

그는 민간에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을 잘 이해했다. 오랜 관례에 따라 지방 특산물과 진기한 음식을 진상하는 관행으로 백성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러자 “중양부처는 각 지방이 보내온 산해진미를 절대로 받지 말 것이며, 감히 금령을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조서를 내려 조정에 선물을 보내던 폐단을 없앴다.

특히 엄격한 법치주의에서 벗어나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벌을 집행하였다. 최대한 형량을 경감하고 장수를 경솔하게 처형하지 않아 지배체제의 안정을 꾀하였다. 그는 “공무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처리하며 행동은 살인을 위를 건너나 깊은 연못앞에 선 것처럼 신중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부드러움으로 천하를 얻고 부드러움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유도치국(柔道治國)의 통치 철학을 철저히 신봉했다.

득릉망축(得陵 망축; 望蜀). “농서 지방을 얻으니 촉나라가 탐난다”는 유명한 고사다. 그가 장군 장평에게 보낸 서한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는 부드러움으로 능히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광무중흥(光武中興)의 태평성대도 그의 일관된 유허정치의 산물이라 하겠다.

#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내 알프스모텔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현재 휴업상태,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 용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리모델링 후 (3억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